

2010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

-고전소설의 대중화 및 일반 독자와의 소통 문제를 중심으로

이민희*

1. 들어가며
2. 세부 주제별 연구 동향
 - 2.1. 전기소설 및 소설사 관련 연구
 - 2.2. 작품론 연구
 - 2.3. 출판·유통 관련 연구
 - 2.4. 고전소설의 대중화 및 교육 관련 연구
 - 2.5. 기타 연구
3. 고전소설의 대중화 및 일반 독자와의 소통 문제
4. 나오며

1. 들어가며

고전소설 연구사에서 2010년 한 해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시간은 연속적이고 생활 그 자체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만을 따로 떼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편견과 왜곡을 조장할 여지가 다분할뿐더러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 해의 연구동향을 거시적 맥락에서 진단하는 일 자체가 지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0년에 산출된 결과물(학술논문, 단행본 저서, 학위논문 등)만 놓고 그 특징적 국면을 언급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고전소설 연구의 대중화와 그 결실’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소설 분야에 서 일반 독자를 고려한 눈높이 번역서와 저작물의 등장이 그 어느 해보다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이다. 학술지 논문을 통한 연구성과는 예년에 비해 그 차이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단행본 도서로 출간된 결과물들의 내용과 성격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야말로 이해 인문학에서 표현 인문학으로의 전환 모색과 인문학의 위기 탈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거나 하나의 대안 찾기라고 한다면 지나친 평가일까? 2010년은 21세기 들어 처음 맞이한 10주년의 해이자, 고전소설 연구의 방향과 현주소를 점검하는 데 있어 어느 해 못지않게 다양하고 풍성한 연구 성과를 보여 준 해임에 틀림없다.

2010년의 연구 성과를 조사한 결과, 학술지에 발표된 소논문만 해도 190여 편에 이른다.¹⁾ 한 명이 2~3편의 논문을 쓴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논문을 한 편 이상 쓴 연구자만도 135명을 헤아린다. 이는 비단 2010년만의 현상은 아닐 것인데, 이런 수치는 고전소설 연구 역량의 크기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한계와 문제점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고전소설 연구의 질과 수준을 가늠하는 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구 대상 자료와 연구의 질, 그리고 연구 규모를 고려할 때,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 보였는가?’라는 자기 성찰과 함께 ‘고전소설 연구가 ‘지금 여기’에 터하고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리라. 본 발표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전제로 2010의 고전소설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한 해에도 작품론 연구는 국문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²⁾ 그 밖에 전기소설, <구운몽>, <사씨남정기>, 판소리계 소설 관련 연구가 변함없이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초기 소설사를 규명하려 한 연구와 소설사회학(출판·유통) 관련 연구, 고전소설 교육과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도 적지 않았다. 한 가지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락된 논문과 저서가 있으리라 본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다.
2) 작년(2010)에 작성된 「2009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에서도 국문장편소설 연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장편소설 연구 편수가 급증한 사실과 소설 연구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고 문제점까지 함께 지적했다.(정길수, 「2009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고전장편소설 연구의 문제」, 『국문학연구』 제22호, 국문학회, 2010, 259~280쪽.) 이런 경향은 2010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특이한 점이라면, 앞서 말했듯이, 역서를 포함한 단행본의 경우, 학술용보다 교양용 도서의 출간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반 독자(청소년이 아닌)와 연구자 모두를 고려한 현대어본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 흥미롭다.

본고에서는 2010년도 고전소설 연구의 가장 큰 특징으로 대중화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짚어보려 한다. 이는 고전소설 연구와 교육의 접점 찾기 문제, 그리고 현대적 적용과 의미부여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고전소설 교육 관련 논문들도 함께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서지사항만이라도 정리해 보는 선에서 참고문헌에 적어 보았다.³⁾ 개별 논문 중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발표자가 임의로 선별해 언급하기로 한다. 연구 논문과 저서가 방대한 것에 비해, 발표자의 능력 부족으로 소중한 연구 결과를 일일이 다루지 못하는 점 미리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이후 장에서는 연구 주제별로 대강을 나눠 그 성격과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소설 및 소설사 관련 연구, 작품론 연구, 출판 유통 관련 연구, 고전소설의 대중화 및 교육 관련 연구, 기타 연구 등이다.

2. 세부 주제별 연구 동향

2.1. 전기소설 및 소설사 관련 연구

초기소설의 발생 동인과 장르적 성격, 미학적 특징 등 초기소설사 관련

연구가 ‘전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한 양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런데 더 이상 새로운 것 없어 보이는 초기소설사 문제를 다시 전면에 거론하며 전기(傳奇) 또는 전기(傳奇)소설의 형성과정에 천착하려는 논문들이 다수 보인다. ‘傳奇’를 단순히 당대(唐代)에 유행한 특정 양식으로 상정하고 논의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초기소설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박일용)이 이미 있었거니와 류준경은 「<김현감호>를 통해 본 전기소설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에서 ‘傳奇’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초기소설사를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띄어 있다.

류준경은 <김현감호>가 이미 널리 유포된 인간과 호랑이의 사랑을 담은 기이담에다 구체적 역사적 사건(궁과 성에 호랑이가 나타나 이를 죽였다)에 대한 설화적 이해가 결합하여 형성된 이야기로 보았다. 이는 <김현감호>가 설화(志怪)의 수준을 넘어서는 전기(傳奇)적 성격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랑이의 희생 모티브뿐만 아니라 전기적 관습, 곧 표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전기적 기술 양식이 결합해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현실인식을 담은 전기소설이 전기(傳奇)적 기술 양식에 의해 비로소 출현할 수 있었던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그래서 전기의 문체적 특징, 서술방식의 특성 등을 새롭게 주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관점이 엄태식의 「<최치원>의 창작 배경과 서사적 특징」에서도 발견된다. 여기서 연구자는 최치원 사후에 단편적인 지괴 형태로 전하는 이야기에다 실존인물 최치원의 면모를 추가해 담아내려는 시도가 있었음에 주목하고 있다. 즉, <최치원>의 작자가 보사(補史)적 시각에서 <쌍녀분기> 설화를 소설화하면서, 중국 전기 <유선굴>의 서사를 차용하고, 전고를 활용해 최치원과 여자 주인공의 갈등을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치원의 인식 변화 및 성찰을 그려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두 연구자의 관점을 종합하면, 전기소설의 형성 과정을 보다 섬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설화 이야기’+‘역사적 관점’+‘전기적 서사관습(글쓰기)’이라는 세 측면을 함께 고려한 작품 이해가 이루어질 때, <최치원>·<김현감호> 등 전기, 또는 초기 전기소설 작품의 형성 및 발달 과정을 보다 실상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견해의 다름 아니다. 이런 주장들

3) 학위논문 중 석사학위논문은 본문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지면 관계도 있지만, 석사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니와 그 중에서도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소설 교육 관련 연구 성과를 살펴다 보니 그 범위와 양이 너무 넓고 커 별도의 연구사 정리가 필요하다고 싶은 정도다. 필자가 조사한 논문의 수만 하더라도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총 25편 중 20편이 국어교육전공 논문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 논문의 질인데, 여기서 따로 언급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참고문헌을 적는 부분에는 일반대학원 석·박사 논문을 비롯해 교육대학원 논문까지 그 서지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놓도록 하겠다.

은 아직 전기소설의 형성과정과 관련한 논의가 더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관련 논의가 다각도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한편, 윤주필도 앞선 논의와 유사하게 <귀토지설>과 <화왕계>가 특별히 정사(正史)인 『삼국사기』에 수록된 까닭에 주목해 이들 작품이 정치적 담론의 우연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두 편의 논문⁴⁾에서 거듭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연이 원래 정치적 주장을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설득의 수사법으로서 애초에 설화 차원에서 전승되던 ‘우화’를 정치적 담론을 지닌 ‘우언’으로 바뀌질 때, 이것이 비로소 ‘옹고 그른 이야기’로 소통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즉, ‘시비’라는 윤리적 주제가 시대와 역사담당층에 따라 변화하면서 일종의 글쓰기 문제로 진일보하게 되고, 정치적 담론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기소설과 우언소설로 나타나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이런 관점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소설사 형성과 발전 과정을 읽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의식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저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우화에서 우언으로 전용하는 방식과 특정한 전고로부터 우언을 창작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각각 민간우언과 창작우언으로 대별된다고 보고, 전자가 야담집과 문집의 고담에 수용된 반면, 후자는 한문고전을 가장한 담론집이나 문집의 ‘우언’편에 수용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것이 양식화를 거치면서 민간우언은 동물 우화소설이나 판소리, 또는 판소리계 소설로, 창작우언은 가전체와 몽유록을 비롯한 다양한 소재의 우언소설로 발전해 나갔다고 보고, 거시적 관점에서의 문학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우언’의 개념과 범위가 너무 넓어 그 적용이 거칠다는 점은 보완을 요한다.

그러나 역사서의 사례를 가지고 설화를 넘어선 글쓰기 문제에 천착하고자 하는 이런 일련의 시도는 류준경·엄태식이 앞서 전기소설의 형성 문제를 다루었을 때의 관점과 분명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학계의 특별한 관심과 추후 공동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출현은 「전근대 동아시아 敍事學의 지평과 한국고전소설의 위상」에서 조선과 중국 고전소설의 영향 관계를 전근대 동아시아 문학 창작의 실천 문제로 환치시켜 거시 담론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그동안 중국소설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소설의 주국소설의 주체적 수용과 변용 문제에만 몰두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우량한 중국소설의 문예적 성취를 때론 적실하게 차용하고, 때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때론 전복적으로 변용하며 소설사를 개척해 왔다고 보는 열린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하여 명·청대에 창작된 四大奇書를 비롯하여 <서상기(西廂記)>가 조선후기 소설 작가들에게 있어 하나의 모범적 전범(典範)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과 견줄만한 소설을 창작하고자 하는 유력한 동인(動因)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을 구가하던 그들과 경쟁하던 소설 작가들의 분투, 그리하여 그에 버금갈 만한 작품을 산출하던 우리 고전소설계의 실천은 그에 값하는 정당한 독법 및 객관적 평가의 시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연구자의 시각이다. 이처럼 기준에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이론과 사실들을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되묻고 반성적 성찰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한·중 고전소설의 소통과 교섭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2.2. 작품론 연구

박일용의 「<최고운전>의 창작 시기와 초기본의 특징」에서 <최고운전>의 창작시기 하한선을 다시금 낮춰 잡은 것이 흥미롭다. 현재 『효빈잡기(效顰雜記)』 수록 「최문창전」 관련 기사를 토대로 상정한 1579년보다도 190년이나 앞선 1389년 이전으로 창작 시기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세동이 편집한 『화동인물총기(話東人物叢記)』에 <최고운전>이 요약된 형태로 소개한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초기소설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화동인물총기』의 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경우, 『총기』 수록 <최고운전>에는 초현설

4) 윤주필, 「우언과 정치-정치담론으로서의 한국 우언문학」,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5~39쪽.; 「<귀토지설>과 <화왕계>의 대비적 고찰」,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91~123쪽.

적 화소가 별반 없다는 점에서 현전 <최고운전> 이본에서 보이는 다수의 초현실적 화소들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며, 그것은 주인공의 초월적 영웅성을 원하던 소설 향유층의 취향에 부응키 위한 것이었다는 결론까지 상정 가능하다. 그렇다면 『총기』 수록 <최고운전>의 존재는 <최고운전>의 초기 이본 발달상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중요 자료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화동인물총서』 기사의 필사 시기와 후대의 가필 여부를 확정짓는 일이 선결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최고운전>과 관련해 유광수 역시 「<최고운전>의 설화적 전승과 ‘최치원설화’의 연원」에서 소설 <최고운전>의 출현 시기를 비정하고 있다. 그 주장의 핵심은 ‘설화→소설’의 영향관계가 아닌, ‘소설→설화’의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설 <최고운전>→최치원 설화’를 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최고운전>이 꽤나 이른 시기에 형성된 소설 내지 서사물이었음을 염두에 둔 논의라는 점에서 박일용의 시각과도 맞닿아 있다.

양승민은 「국문 창작 가전체소설 <花王本記>와 그 한문번역본」에서 김레연의 가전체소설 <화왕본기>의 문학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다. 이미 <화왕본기>의 존재는 알려진 바지만, 그 문학사적 평가가 부족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화왕본기>가 김레연 자필본이라는 점에서 원본으로서의 연구가치가 높을 뿐더러, 한글본에서 한문본으로 번역한 것도 특별하지만 한역을 남성이 아닌 김레연의 외종손녀 ‘홍부인’이 했다는 것이며, <화사>로 대표되는 ‘문장체’ 한문소설과 달리 한문 표기의 전통과 양식적 틀에서 벗어나 ‘국문소설적 전환’을 꾀하고 있는 데다 서사적 흥미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몽유록의 전통까지 수용해 양식적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작품의 소설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연구자 스스로 <화왕본기>가 자전적 소설이며 작가 김레연을 국문문학사에서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평가했으면서 정작 작가의 생애나 작가적 특성에 대한 언급은 매우 소략하게 다뤄지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하성란은 「<포의교집>의 삽입시 연구」에서 <포의교집>에 삽입된 시 1편이 <상사동기> 수록 시와 동일하다는 사실과 초옥이 이생에게

준 시 중 하나는 허난설헌이 지은 시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이런 증거들은 <포의교집>이 17세기 애정소설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으며, 작가가 허난설헌과 깊은 정신적 유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서로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삽입시 한 편이 지닌 특별한 의미 하나만으로 작품의 영향 관계를 일반화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충분한 사례와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경일남은 「고전소설에 나타난 악승의 양상과 문학적 의미」에서 요시승과 음란승은 주로 국문장편소설에서, 폭로배적인 무뢰승은 애정소설과 통속영웅소설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인형 주변인물로서의 악승(惡僧)의 의미와 작중 기능이 흥미성과 환상성 강화에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그런가 하면 김진영은 고전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적강(讎降)화소가 건국신화나 서사무가보다 오히려 불교서사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논하였다. 「고전소설에 나타난 적강화소의 기원 탐색」 최길용은 「고소설에 나타나는 앵혈화소의 서사 실상과 의미」에서 앵혈 화소가 중국소설과 다른 점을 비교 논의하며, 처녀성표지뿐 아니라 여성의 신분표지와 남성의 동정감별도구로까지 확장되어 다양한 서사를 펼쳐내고 있다고 했다. 여성의 성을 남성의 통제 아래 두고 순혈적 가부장 사회의 구축을 추구하려 한 의도를 앵혈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새 발굴 작품에 대한 소개도 여러 편 있었다. 서정민은 새 국문장편소설 <석중옥기연록>을 소개하며 작품의 경계와 이본 사항을 논하였는데, 국문장편소설의 전통을 잇기보다 정통 전(傳)의 형식적 특징과 그 서술을 지향하고 있어 국문장편소설의 단일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우림걸(牛林杰)과 류혜영(劉惠瑩)은 「중국 근대 回章小說 <英雄淚>에 대한 고찰」에서 한일합방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안중근을 비롯한 한국 근대 인물들을 등장시켜 형상화한 20세기 초 창작 회장소설 <영웅루(英雄淚)>를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김재용은 20세기 초에 남성 지식인 김구장(金區長)이 창작한 한글본 영웅소설 <김태백전> 외에도, 활자본 <월영낭자전>과 이본 관계에 있는 쟁쟁형 가정소설 <최효양 문록>의 존재와 그 작품세계를 처음으로 개관했다. 그 밖에 조재현은 전반

부는 계모형 서사, 후반부는 여성영웅의 군담이 주가 되는 한글필사본 <양소저전>의 작품교섭 양상과 주인공의 여성영웅적 면모를 다루었다. 허원기는 20세기 초에 필사된 <칠미인연유기(七美人宴遊記)>가 서지와 형식과 내용면에서 조선후기 필사본 국문고전소설의 최종적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하였다. 저 멀리 캐나다 토론토대 ‘토마스 피셔 희귀본 장서실’에 소장된 『게일 문서』 소재 게일의 영역본 고전소설 18종 중 <심청전>과 <토생전> 두 작품의 존재 사실과 그 의의를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한 논문도 있었다.⁵⁾ 영역본 자료 전문까지 부록으로 소개됨으로써 그 텍스트를 국내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영역본 고소설 작품이 “100여 년 전에 단순히 ‘서양의 언어’로 ‘동양의 문화’를 옮겼다는 번역학의 인식을 넘어 두 문화의 통섭으로 볼”⁶⁾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는 연구자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작품론 연구의 중핵은 국문 장편소설이 차지하고 있다. 조광국은 <벽허담관제언록>을 대상으로 상층여성의 애욕 서사 문제를, <유이양문록>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첫 눈에 반하는 사랑’의 양상과 의미를, 그리고 <하진양문록>에서는 여성인물들의 효 담론 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 들었다.⁷⁾ 이 중 <벽허담관제언록>에서는 애욕(愛慾)과 부덕(婦德) 성향이 극단적 이원화 구도를 띠는 가운데 정실 선호의 일부일처 의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정실의 애욕 억압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별얼가부장제라는 거대담론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아직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첫 눈에 반한 사랑’의 서사(<유이양문록>)를 통해 20세기의 자유연애나 중매결혼의 반대와 같은 사랑의 새 풍속도를 이끌어내는 자극제가 되었다고 평가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치균은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난 청나라 지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미」에서 <왕회전>·<징

세비태록>·<태원지>를 예로 들며 이들 작품에 원나라, 또는 청나라가 배경으로 설정된 것이 이채롭다고 보고, 특별히 낙선재본 소설인 <징세비태록>·<태원지>는 청나라 지배의 중국에 대한 조선후기 상층부의 의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고 보았다. 조혜란은 가문소설에 등장하는 남성 주동인물들이 대개 전형적인 영웅군자 또는 유가적 지식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임씨삼대록>에 등장하는 임관홍의 처사적 면모를 통해 ‘성찰하는 개인’으로서의 개성적인 남성인물의 출현을 포착해 내었다.⁸⁾ 그런가 하면 정선희는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부모-자녀 관계에 주목했다. 가문의 창달과 계승에 관심이 많은 국문장편소설에서 엄하지만 은근한 정을 표현하는 아버지, 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교육하는 아버지, 딸을 자신의 분신으로 인식하고 더 엄격히 가르치는 어머니 등의 부모상을 추출해냈다. 이는 국문장편소설을 통해 향유층들의 실제 삶과 밀접한 일상을 재구해내는 작업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 고전소설 속 캐릭터를 고찰하는 데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지영은 「<창선감의록> 연구」에서 조성기의 사유세계와 작품에 나타난 작자의식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보고, 조성기가 <창선감의록>의 작자가 아닐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 밖에 한길연은 국문장편소설에서 보여주는 환상성이 전기소설과 영웅소설의 그것과는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즉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선악의 이분법적 관념에 의해 ‘천명적(天命的) 환상성’과 ‘역천적(逆天的) 환상성’으로 대별되며, 그 환상성은 현실 비판 또는 전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되비추고 현실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환상성이 흥미 증가 또는 사건의 계기적 요소로 기능한다고 여겼던 연구와는 차별적인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⁹⁾ 김문희는 국문장편소설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전고(典故)

5) 권순균·한재표·이상현, <게일 문서(Gale, James Scarth Papers)> 소재 <심청전>, <토생전> 영역본의 발굴과 의의,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419~494쪽.

6) 위의 글, 437쪽.

7) 조광국, <벽허담관제언록>에 구현된 상층여성의 애욕담론,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유이양문록>에 구현된 ‘첫 눈에 반하는 사랑’의 양상과 의미, 『국문학연구』 22, 국문학회, 2010.; <하진양문록>: 여성중심의 효 담론, 『어문연구』 14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8) 조혜란, 가문과 개인 사이-<임씨삼대록>의 임관홍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255~287쪽.

9) 그러나 발표자는 개인적으로 ‘천명적 환상성’과 ‘역천적 환상성’이라는 용어 사용이 과연 자연스러운가 라는 생각이 든다. ‘환상성’의 특질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관형사 ‘천명적(天命的)’, ‘역천적(逆天的)’이란 조어가 그 자체로 어색하며, ‘환상성’이라는 개념을 명료하게 드러내 주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의’의 어감과 의미가 ‘환상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한 채 허술한 의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천명적

의 기능과 의미에 천착, 전고야말로 사대부 여성의 계층적 지식과 교양을 제시해 가해적 독서 맥락을 창출하고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의 의미를 중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고전소설 독자 또는 독서 연구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¹⁰⁾ 그 밖의 국문장편소설 관련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2.3. 출판·유통 관련 연구

열상고전연구회 학술대회에서 ‘조선후기 상업출판과 방각본’이라는 주제로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운석은 「방각본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서 방각본을 단순히 이본의 한 형태로 보지 말고, 사회변화의 산물인지, 아니면 방각본 같은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로 사회변화가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글방각본 외에 한문방각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 또한 필요하며, 류준경이 가장 이른 시기의 방각본으로 지목한 전라도 태인판이 과연 상업 출판물인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상업출판물이 먼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방각본 간행에 국가가 어느 정도 간섭, 또는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긴요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동안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방각본 소설로 다뤄져 온 연세대본 <임경업전>(1780년 刊)이 실은 관청(감영)에서 간행한 관판일 가능성이 높다(‘京畿開板’에서의 ‘京畿’의 의미와 관련해)는 반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일련의 이런 문제제기는 아직도 방각본 관련 연구가 상당 부분 미흡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다.

최호석은 그동안 미처 다루지 못해 온 안성판 방각소설에 주목했다. 그 결과, 안성판이 경판으로부터 일방적 영향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반

대로 경판 방각소설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 독자성까지 구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안성판과 경판의 거리」) 그런가 하면 이창현은 새롭게 발견된 경판방각소설 <숙향전>(단권 44장본) 자료를 기존 자료들과 비교, 기존의 ‘상하 63장본’과 ‘단권 44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을 공동모본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밖에 진상옥은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나 존재 사실만 알고 있던 한글방각소설 4종 <별월봉기>·<세민황제전>·<소대성전>·<장풍운전>의 실체를 작품별로 개관, 소개했다.(「한글방각소설 신자료 고찰」) 이 외에도 여러 편의 타 분야 논문들이 방각본 연구의 현주소를 진단하려는 목적에서 발표되었다. 방각본 연구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아직 방각본의 정의¹¹⁾로부터 범위 설정¹²⁾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방법론과 관련한,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재인식하게 된 것 역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것이다.

개별 논문 중에는 동양문고 소장 향목동 세책본 <적성의전>(1915)을 대상으로 세책본과 그 주변 다른 이본들을 비교 검토, 세책본 고소설의 성립 연원과 제작 방식을 살핀 유광수 논문(「세책본 고소설의 성립 연원과 제작 방식에 대하여」)이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향목동 세책본 <적성의전>이 경판·완판·안성판을 적극 참고, 수용해 만든 텍스트임을 확인하고, 세책본이 대중의 취향과 시장성을 고려해 독자 입맛에 맞는 텍스트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인기 있는 방각본에서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짜깁기하듯 제작되었음을 조명했다. 이렇듯 세책본 제작의 실제적 예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세책 제작 방식을 <적성의전> 한 편의 사례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미 세책업이 쇠퇴하던 1915년

세계관, 역천적 주제, 천명적 등장인물 등으로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천명적/역천적’이 내용,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면 ‘환상(성)’은 서사기법 내지 형식과 관련되기에 양자가 이질적인 조합으로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10) 이런 논의에서 추출된 전고의 구체적 양상과 내용에 관한 연구가 축적될 경우, 소위 ‘고전소설 전고(典故) 사전’과 같은 책으로 만들어져 여러 모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1) 옥영정은 방각본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재검토를 요한다고 보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목판으로 간행한 책”이라는 기존 정의가 아닌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간행한 목판본, 또는 고활자본”으로 새롭게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옥영정, 「미소설 한문방각본 간행에 대한 서지적 고찰」, 『열상고전연구』 31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219쪽)

12) 예컨대, 책짜라는 서적중개상이 거래한 서책은 대부분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된 것이 아니므로 이들은 방각본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활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족보 등을 만들어 주던 사람들이 간행한 책도 방각본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그렇거니와 민간이라는 간행 주체만 해도 개인은 물론이고 문중, 향교, 방각소, 서사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단정 지어 규정하기 어렵다.

에 필사된 세책본 소설이 과연 세책업자가 여타 이본의 장점과 시장성, 독자의 취향을 두루 고려해 정성껏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지영은 「18세기 경화사족의 소설 향유」에서 18세기 소설 향유와 관련한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가설을 여럿 제시했다. 그 중에서 세책의 주 고객이 사대부가 여성이 아닌 경제력을 갖춘 중인 이하 계층의 여성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18세기 사대부가 여성의 소설 향유가 세책보다는 집안을 중심으로 한 자급 형식에 있었다는 점 등은 앞으로 다양한 논쟁과 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련 자료가 불충분해 확실한 결론 도출이 어렵다는 것이 난제임이 분명하다. 한편, 주형에는 19세기에 이르러 시정에서 널리 읽힌 한글통속소설의 경우, 독자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서사문법과 더불어 사회에서 용인 가능한 방향으로 쾌락과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세부적 서술전략을 구사했음을 밝혔다.(「19세기 한글통속소설의 서사문법과 독서경험」)

최용철은 「조선왕실에서의 중국소설 수용과 반향」에서 소설을 애독한 최상층 독자, 곧 조선의 왕을 집중 탐구했다. 연산군(燕山君)은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소설작품의 구입을 명하고 간행 및 주해서를 만들도록 주문했던 군주였다. 또한 궁중에 다량의 소설작품을 소장하고 궁중화원(畫員)을 시켜 소설 삽화를 모아 모사해 책을 편찬토록 하는 한편, 본인 스스로 수많은 소설작품의 목록을 담은 『中國小說繪模本』 서문을 직접 쓰기도 했던 사도세자(思悼世子)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사도세자의 소설 애호와 그 과장이 정조 때 강력한 문체반정운동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본 주장은 보다 정치한 검증과 논의가 요구되지만, 우리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그 밖에 최호석이 「영창서관의 고전소설 출판에 대한 연구」에서 20세기 전반기 출판계를 대표하는 영창서관(永昌書館) 간행 고전소설과 주인 강희영(姜義永)의 출판 인생을 다룬 것이나 권미숙이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20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서적중개상의 활자본 고전소설 유통 양상을 살핀 논문도 고전소설의 출판 유통과 관련한 실제적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엄태웅은 회동서관(滙洞書館)의 고전소설 간행 양상을,

이민희는 한남서림(翰南書林)의 출판물과 주인 백두용(白斗鏞)의 생애를 살펴 20세기 전반기 고전소설 출판 현황과 서점 경영의 단면을 포착해 내었다.

요컨대, 2010년도에 다뤄진 고전소설 출판 및 유통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보면, 자료 취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재삼 확인한 것과 사회문화사적 층위에서 고전소설 출판·유통·향유의 본질을 찾아내려는 관점 형성과 방법론 도출이 시급함을 인식한 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고전소설의 대중화 및 교육 관련 연구

지난 해 고전소설 연구자들이 보여준 대중화 노력은 완역 단행본의 출간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현대어역 단행본 출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논문에 나타난 고전소설 대중화¹³⁾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서인석은 「교육텍스트로서의 <홍길동전>」에서 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홍길동전>이 <홍길동전>의 대표 이본인 경판 24장본과 완판 36장본임을 확인하고, 각각 장단점이 있는 이본 중 어느 하나를 교과서에 신더라도 다른 이본의 존재를 알려주어 고전소설의 주요 특징인 이본의 다양성이 보여주는 진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지식 차원에서 ‘최초의 국문소설’이며 ‘적서차별 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임을 알려주는 교육에서 탈피해 <홍길동전>의 당대적 주제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되어 가르쳐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 것의 다름 아니다. 더욱이 이는 교과서 수록 고전소설의 지위가 ‘고

13) ‘고전소설의 대중화’라고 범박하게 말하는 이것은 고전소설이 어떻게 현대와 소통 가능한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담 가능한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방법에는 고전소설 작품과 소설사적 현상에 대한 일차적 분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을 이론화해 연구물로 보여주는 것이 그 하나요, 일반 대중독자를 겨냥한 고전소설 관련 독서물을 내놓는 것(번역, 주해 등)이 다른 하나요, 초·중·고등 교육 현장의 주체(학생, 교사, 교재)와 고전소설을 매개로 한 다양한 소통 방식(교육, 체험 등)을 보여주는 것이 또 다른 하나가 된다.

전'에서 '소설'을 거쳐 '문학' 제재로 변화하고, 고전소설 독자가 성인이 아닌 청소년 대상 입시용 문학으로 전락해 버린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된다.

김경미는 동일한 작품(『홍길동전』)에 대해 타자의 관점에서 다시 읽기를 시도했다.(『타자의 서사, 타자화의 서사, <홍길동전>』) 타자의 관점에서 볼 때, <홍길동전>은 양반 사회의 타자인 홍길동의 인정투쟁이 실감나게 그려진 작품이라지만, 전반부의 타자의 서사가 후반부에서 타자화의 서사로 전환되면서 문제의식은 희석되고, 정복의 서사로 마무리된 작품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경제 발전으로 갖게 된 한국의 '소제국주의' 의식과 겹쳐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식민과 가난의 역사를 겪어온 한국인의 성공담 뒤에 숨어 있는 한국의 자화상과 오버랩 시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데 <홍길동전>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고전소설이 현대에도 의미 있는 서사로 현대인에게 다가가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고전소설과 문화콘텐츠를 연계시키려는 일련의 논의와 시도가 최근 들어 담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다. 가시적 성과가 별반 보이지 않고, 여전히 고전소설과 콘텐츠 산업과의 공존 모색이나 구체적 적용 관련 논의와 실천이 피부로 느낄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이런 상황에서 관련 논문이 여전히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고혼은 온라인 게임과 판지, 무협소설이 결합된 장르인 '게임소설'이 고전소설 중 영웅소설의 서사 구조를 가져오고 있는 것에 주목해 서사 구조상 발견되는 흥미 요소를 연결고리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게임소설과 영웅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안기수 또한 영웅소설과 게임이 갖는 공통적 요소인 캐릭터, 사건, 공간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개발 문제를 다루었다.(『한국 영웅소설의 게임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그러나 실제 논의 내용을 들여다보노라면 과연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학문적 성과와 의미가 무엇인지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다. 그나마 고전소설과 영화의 만남, 또는 고전소설에 기초해 재탄생된 영화를 통해 고전소설의 사회적·현재적 의미를 되짚어보려는 시도는 어문생활사적 측면에서 그 관련성과 의미 부여가 훨씬 수월하다. 이종

호의 「고전소설 <던우치전>과 영화 <전우치>의 서사구조 비교 연구」와 같은 수 편의 논문들이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2.5. 기타 연구

19세기 소설사의 특질을 고구하고자 한 논문이 수 편 발표되었다. 기획 논문으로 나온 것으로¹⁴⁾ 정환국은 홍경래 난을 소재로 한 작품을 가지고 19세기 소설의 지형을 살펴보고자 했다.(『홍경래란을 바라보는 시선』) 19세기 초에 발생한 홍경래 난을 당시 지식인들은 변방 역도가 일으킨 반란 정도로 인식하였지만, 19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난 소설 <홍경래전>을 비롯해 관련 서사 작품에서는 홍경래가 민중의 영웅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그 지점에서 상하층의 시선과 인식상의 괴리와 착종 문제를, 19세기 문학담당층의 균열을 포착해 내고자 했다. 장예준은 <두껍전>에 나타난 '지식' 향유 양상을 「19세기 소설의 '지식' 구성의 한 양상과 '지식'의 성격」에서 다루었다. 19세기 서사의 특징 중 하나가 지식의 나열 서술에 있음에 주목했을 때, <두껍전>에서 '지식'은 등장인물의 말하기 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보편적인 지식과 사상으로서의 지식'이 <옥루몽>, <옥선몽> 등의 고차원적인 지식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는 하층의 '지식' 향유가 상층의 고급 전고와 지식을 끌어다 쓴 것으로 하층이 상층의 이념을 일정 정도 '전유(專有)'함으로써 나타난 부수적 결과의 다름 아니다. 상하층 지식과 사상의 공통분모화를 우화소설과 판소리계소설 내 '지식' 표출의 문제로 접근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이나, 역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반면, 19세기가 전후 반기에 균열 지점이 보이고 상하층의 교섭 시도가 활발해진 것과 달리, 기존 질서와 체제를 고수하려는 의식 역시 공존했음을 한의승의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다.(『19세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충·효·열의 구현양상 연구』). 특별히 <한조충효록(韓趙忠孝錄)>, <오후강전(吳後姜傳)>, <편옥기우기

14) 민족문학사연구소 내 19세기 소설반에서 기획하고 한국어문학연구학회가 주관한 가운데 동국대에서 정기학술대회(2010. 6.)에서 개최되었다.

(片玉奇遇記)>, <일석화(一夕花)>, 이 네 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문소설에 구축된 보수적 이데올로기 문제를 지적했다. 시론적이었지만, 19세기 소설사를 규명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분명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의 한국사회와 소설사가 길항과 착종 속에 흔들리고 있는 지점을 명확히 포착해 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19세기를 소설사에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제기와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연민학회에서는 ‘연민 선생의 번역 및 주석본 소설에 대한 연구’라는 기획주제로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민 선생의 번역본 <양반전>(서현경)과 번역본 <금오신화>(이대형), 역주본 <서상기>(강동엽), 주석본 <춘향전>(이윤석), 주석본 <구운몽>(허경진)이 각각 재조명되었다. 각 작품별로 연민 번역본과 주석본의 특징과 장점이 세세히 다뤄짐으로써 연민의 번역·주석본 고전소설의 작품세계와 실재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논문마다 정작 연민의 번역·주석본 고전소설 작품들이 그동안 학계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적극적 해명이 보이지 않는 것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전소설을 문학치료와 접목시킨 논문들도 꾸준히 발표되었다. 김수연의 「운영의 자살심리와 <운영전>의 치유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 이승복의 「<사씨남정기>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신재홍의 「<김현감호>와 <조신>의 비극적 삶과 치료적 글쓰기」 등이 눈에 띈다. 더욱이 김현영은 「변신 모티프가 나타난 고소설을 활용한 문학치료 사례 연구」로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김현영 외에 김도환·김현주·류호열·엄태식도 박사학위논문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이 중 여기서는 김도환과 엄태식의 학위논문만을 간단히 소개해 본다. 김도환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방식 연구」(고려대)는 고전소설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군담의 확장 방식을 살펴 작품의 미감과 특징을 드러낼 수 있다는 시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군담 확장의 구체적인 방식과 양상을 검토한 결과, 군담을 확장시키는 흥미의 동력이 영웅 형상 및 대결 구도의 강화에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장편가문소설·장편영웅소

설·영웅소설의 군담의 확장 방식을 살폈는데, 장편가문소설에서의 군담이 서사를 위한 기능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점차 서사적 흥미를 띠게 되었고, 그것이 <남정팔난기>·<옥루몽> 등의 장편영웅소설에 이르러 크게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편영웅소설’이 기존 용어보다 더 적절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무엇보다 논의대상에 역사군담소설이 빠져 있는 데다 논의 구도에 맞지 않는 작품은 배제시킨 채 결론을 도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단점 역시 분명해 보인다.

한편, 엄태식은 「애정전기소설의 창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경원대)에서 애정전기소설을 ‘나말여초~16세기 애정전기소설’과 ‘17세기 애정전기소설’로 나누었다. 이 둘은 창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에서 ‘상대적’인 변별성이 감지되는 바, 그것은 소재적 측면의 ‘奇遇’와 창작의도 및 독자의 수용태도 측면에서의 ‘奇遇’를 고려한 결과로, 전자가 우의적 성향이 강한 반면 후자는 통속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시기별 특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후자로 갈수록 전고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남녀의 사랑이 우의의 장치로 기능하다가 후자에 이르러 ‘사랑’ 그 자체를 다루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과 문제의식은 이미 개별 전기소설 작품 연구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다뤄지거나 논의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에 창작 연원과 작품 분석의 유기성이 긴밀하지 못한 점을 간파하고, 17세기 이전과 이후의 애정전기소설의 상대적 변별성을 통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구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큼은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전소설의 대중화 및 일반 독자와의 소통 문제

2010년에는 무엇보다 고전소설의 현대어역이 활발히 나타났다. 특별히 한 해동안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과 낙선재본 소설, 그리고 <창선감의록> 등 기존에 널리 알려진 작품들을 재번역한 번역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먼저 ‘이화한국문화연구총서’의 타이틀을 걸고 <소현성록>(전 4권)·

<유씨삼대록>(전 4권)·<임씨삼대록>(전 3권)·<조씨삼대록>(전 5권)·<현몽쌍룡기>(전 3권) 등 한글장편소설 5종의 번역본이 동시에 출간되었다. 이 번역에 직접 참여한 전공 연구자들만 12명에 이른다. 일반 독자들은 물론, 타 전공 연구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질의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이 비로소 등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장편소설의 현대어역과 일반 독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과 그 결실은 이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조선 왕실의 소설’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는 낙선재에 수집되어 왕실에서 널리 읽혔던 소설들을 현대어본과 교주본으로 나눠 아예 일반 독자용·연구자용 독서물로 이원화해 출간하고 있는 것이 차별적이다. 2010년에는 <영이록>과 <낙천등운>이 간행되었다. 그런가 하면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수 년 간 기획해 온 한국고전문학전집도 등장했다. 잘 알려진 고전문학 작품을 엄선해 새로운 번역을 시도, 현대어역의 정본을 추구하고자 한 것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중 고전소설 작품으로는 <창선 감의록>(이지영 역주), <홍길동전·전우치전>(김현양 역주), <숙향전·숙영낭자전>(이상구 역주), <홍부전·홍부가·옹고집전>(정충권 역주)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천년의 우리소설’ 총서 제 2차분으로 간행된 『기인과 협객』·『세상을 즐겨보며 한번 웃다』·『끝나지 않은 사랑』(박희병·정길수 편역) 등도 선을 보였다. 원문의 정전 선정은 물론, 번역본의 선본(善本)을 염두에 둔, 가독성을 고려한 번역물에 해당한다. 그 밖에 지만지 고전선집 총서에서도 서동지전(최진형 역)·『유충렬전』(이상구 역)·『여용국전·어득강전·조충의전』(이민희 역)·『용문전』(신혜진 역) 등을 내놓았다.

이처럼 한 해 동안 고전소설 번역본과 교주본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들 현대어역본은 공히 기존 번역본과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자들을 위한 주해본·번역본, 또는 청소년을 위해 축약·변개한 번역본이 주를 이룬 탓에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 너무 어렵고 딱딱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쉽거나 원전 훼손 정도가 심해 독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된 번역본들은 공통적으로 일반 독자의 취향에 부응하는 한편, 타 전공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전의 묘미와 감동을 그대로 전하

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고전소설의 대중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한 시도라 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고전소설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일반 독자들이 직접 감상할 수 있게 되었고, 고전소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재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흔히 우연성의 낱말, 평면적 인물, 초현실적 사건, 행복한 결말, 권선징악의 주제 등을 고전소설 일반의 특징인 양 잘못 인식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이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고전소설 연구자들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¹⁵⁾ 앞으로 고전소설 연구자들이 연구 자체에 머물지 않고 교육적 적용 및 현대적 의미 찾기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여야 하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고전소설 원문을 현대어역하여 일반 독서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어 대중 출판물로 간행, 보급하는 ‘다시쓰기(rewriting)’ 작업의 실상과 전망을 다룬 연구¹⁶⁾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 밖에 생소한 고전소설 작품을 일부러 추려 주해를 가한 총서가 간행되었다. ‘숨겨진 우리소설 총서’라는 제목 하에 <김성운전>(박인희 주해), <설홍전>(임주영 주해), <양소제전>(박인희 주해), <왕능전>(노영근 주해), <장현전>(노영근 주해) 총 5작품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들 작품 자체의 가치와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와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작품이라는 흥미 요소만 가지고 독자와 만나려는 시도가 자칫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번역과 교주 외에 일반 독자와의 눈높이를 고려한 단행본이 여러 편 출

15) 박희병·정길수 편역의 ‘천년의 우리소설’ 총서 간행사에서도 이러한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이 총서를 통해, 흔히 한국 고전소설의 병폐로 거론되어 온, 천편일률적이라든가, 상투적 구성을 보인다는가, 권선징악적 결말로 끝난다는가, 선인과 악인의 판에 박힌 이분법적 대립으로 일관한다는가, 역사적·현실적 감각이 부족하다는가, 시공간적 배경이 중국으로 설정된 탓에 현실감이 확 떨어진다든가 하는 지적으로부터 꽤 자유로운 작품들을 가능한 한 많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 고전소설, 특히 한문으로 쓰인 한국 고전소설은 원문을 얼마나 정확하면서도 쉽고 유려한 현대 한국어로 옮길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작품의 가독성은 물론이려니와 감동과 흥미가 배가될 수도 있고 반감될 수도 있다.”

16) 권혁래, 「고전소설의 다시쓰기 출판물 연구 시론」,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3~39쪽.

간된 것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병설의 『구운몽도(九雲夢圖)』(문학동네)와 정길수의 『구운몽 다시 읽기』(돌베개), 간호윤의 『아름다운 우리 고전소설사』(해냄), 오세정·조현우의 『고전, 대중문화를 엿보다』(이숲), 그리고 이정원의 『전을 범하다』(웅진지식하우스)를 꼽을 수 있다.

정병설의 『구운몽도』는 고전소설이, 아니 우리의 고전이 현대 독자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답을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에 해당한다. 그림 <구운몽도>를 매개로 소설 <구운몽>의 다면적 모습을 파헤치고,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분석하고, 주위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구운몽>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대로 <구운몽>을 알지 못하는 다수에게 그 실체를, 그리고 조금은 안다는 이들에게 작품의 고전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 매력이 강력하다. 그러므로 인문학과 독서대중의 간극을 좁히는 실천적 작업의 사례로 손색이 없다.

『구운몽 다시 읽기』는 그동안 엄청난 양의 구운몽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구운몽>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문자답적 성찰과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다. 연구자와 일반 독자 모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세미(semi) 학술서’요 ‘세미 인문교양서’에 해당한다. <구운몽> 연구와 관련한 여러 궁금증과 논쟁거리를 쉽고 명료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미덕이다. <구운몽>의 작가 문제, 제목의 의미, 원작 표기와 이본 문제, 그리고 작품의 주제와 인물, 창작 원리와 독자 관련 연구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저자의 집요한 탐구가 곳곳에서 묻어난다. 그러나 원작 표기 문제나 이본의 계보 탐구 논의는 연구의 근간이 되는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전 자료만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만큼 여기에 다수의 연구자들이 매달릴 계제는 아니다. 『구운몽』이 21세기에도 여전히 ‘고전’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를, 작품 감상과 독법, 그리고 현대적 적용 문제로 환치시켜 다루고자 한 저자의 의중을 이런 면에서 읽어내야 할 것이다.

이정원의 『전을 범하다』는 ‘서늘하고 매혹적인 우리 고전 다시 읽기’라는 부제가 암시하고 있듯이 문제적 고전소설과 설화 13편을 가지고 ‘박제

된 고전’ 작품이 아닌,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고전으로 되살려내고자 한 결과물이다. ‘권선징악과 지배 이데올로기이라는 계몽의 스티커’를 떼어버렸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가치가 현재에도 매우 유용한 것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심청의 자발적 인신공양과 관련한 현대인들의 궁금증에 대해 저자는 자식이 눈먼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폭력적 이데올로기 숭배 사회가 만들어낸 문화적 훈육의 결과임을 들려주고, 이것이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발견되는 의식임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다. 고전소설 연구자들의 긍정적 ‘외도’는 바로 현대의 독자들과 소통하려는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음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 하겠다.

간호윤은 『아름다운 우리 고전소설사』에서 천 년의 역사동안 전개되어 온 고전소설의 역사를 고소설론과 작가론, 작품론, 배경론, 문화론 다섯 가지 영역에서 백과사전식으로 관련 자료를 망라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그동안 축적된, 최근의 고전소설 연구 성과를 다면적으로 포착, 일반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한 권의 책 속에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담아내고자 한 의도 자체는 가상하고 시의 적절하다. 그러나 그 책 속에서 정작 연구자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잘 감지되지 않는다. 제목에서 말하는 우리 고전소설의 ‘아름다움’이 과연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 없다. 독자들이 읽고 직접 찾아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일반 독자는 아니지만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학술서적도 수 중 간행되었다. 주로 기존의 소논문과 연구 성과를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들이다. 고소설학회에서 8번째로 펴낸 총서 『다시 보는 고소설사』가 그 하나의 예가 된다. 총 15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온 콘텐츠의 문제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고소설사 연구로의 회귀를 위해 기획되었다. ‘초기 소설사의 역동’, ‘17~18세기 고소설과 생활사’, ‘고소설과 근대성’ 이렇게 3부로 나눠 소설의 기점과 장르의 문제,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조선후기의 생활상, 고소설이 실렸던 매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려고 했다. 그러나 기획 의도처럼 고소설의 시대적 변천사를 짚어내면서 그 전환과 변모 양상과 그 특성을 촘촘히 짚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편의 논문을 단순 편집한 것이라 일관된 사적 관점이나 체계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다만 고소설사와 관련해 현재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대강의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제 학계의 역량을 결집시켜 소위 ‘한국고전소설사’와 같은 책을 공동으로 내놓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국내 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전 세계 연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색깔을 지닌 소설사의 간행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 밖에 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의 『韓國 古小説 研究』와 장효현의 『한국 고전문학의 시각』, 그리고 이원수의 『한국 고전서사문학 연구』 정도가 눈에 들어온다. 『한국 고소설 연구』는 모리시게 교수가 1959년부터 2009년까지 50년 동안 발표한 논문 중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던 것들을 위주로 평생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결과물이다. 저자가 소설 독자 연구와 세책 연구에 끼친 영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이런 의미에서 외국인 노학자의 추수적 성격이 강한 이 책을 간단히 읽고 넘겨버리는 것은 후학들의 손해다. 10여 편에 이르는 개별 소설 작품세계에 대한 분석과 하위소설 갈래의 특징에 관한 연구, 그리고 중국소설의 국내 수용 양상과 특색을 살핀 글들에서 50년 개인 연구사가 고스란히 묻어남을 발견할 수 있다.

장효현의 『한국 고전문학의 시각』 또한 1981년부터 그동안 각론으로 썼던 논문들(고전시가, 국문학 학술사 포함)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여기에는 고전문학을 향한 저자의 시각이 담긴 글과 국문학자들(이능화, 안확, 김태준, 구자균)의 연구 시각을 평가한 글이 함께 들어 있다. 물론 주가 되는 것은 전설과 우언으로부터 장편소설에 이르는 서사문학이다. 그간 연구자의 관심사와 연구 궤적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이원수의 『한국 고전서사문학 연구』 역시 기존의 여러 논문을 한 곳에 모았다. <사씨남정기>와 <콩쥐팍쥐> 관련 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중 <사씨남정기>의 창작동기 및 창작 시기 논란이나 남북한 <사씨남정기> 연구사를 다룬 것을 주목할 만하다. 전자는 여전히 논쟁 중인 주제라는 점에서¹⁷⁾, 후자는 북한의 <사씨남정기> 연구 경향과 연구사를

확인¹⁸⁾함으로써 연구 시각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구운몽 연구’의 대가인 석현 정규복 선생이 평생 연구한 저서들이 총 8권의 총서 형태로 재출간되었다.(석현 정규복 총서 1~8권) 아직도 <구운몽>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상태에서 정규복 선생의 기존 연구결과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후학으로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더욱 의미 있는 성과들이 활발히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4. 나오며

2010년은 21세기 초 밀레니엄 시대가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세계가 불분명한 환상이었음을 자각하고, 다시 현실을 직시한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하나의 지점과도 같다. 즉, 도래한 밀레니엄 시대에 대한 인문학적 환상¹⁹⁾이 깨지면서 인문학의 위기를 운운하던 시각에서 인문학의 본질과 방향을 다시금 재설계해 나가려는 시도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시 인문학의 본질에 대한 질문, 곧 인문학이 디지털 시대에 왜 필요한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 모색과 관

다. <사씨남정기>가 <구운몽>보다 선행했다는 초기 연구자들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으며,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의 선후관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느 것이 선행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18) 남북한의 <사씨남정기> 연구는 접근 시각과 태도, 작품해석과 평가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데, 남한 학계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 온 것과 달리, 북한 학계는 작품론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사회주의 문예이론 및 주제적 문예사상의 틀 안에서만 논의하는 데 치중해 있다고 보았다.

19) 그 구체적 실상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소위 디지털 혁명에 따른 문자 중심주의적 사고를 넘어서기 위해 이해인문학에서 표현인문학으로의 진전을 촉구했던 것이 그 하나의 예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표현인문학의 가치와 의미가 벌써 퇴색했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인문학의 존재의미를 다양한 연구 관점과 방법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거기에 걸었던 기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과 의식의 변화는 더디게 나타나고, 디지털을 활용한 인문학적 사고의 전환 역시 체감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활자 형태의 책이 여전히 인문학적 사유를 매개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림·음악·영화·게임·IT컨텐츠 등과의 상보적 이해나 상생적 접목이 아직 미래를 주도할 만한 대안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7) 저자는 <사씨남정기>의 내용과 장희빈 사건과의 관련성을 근거 불충분으로 결론짓고 있

련된다. 고전소설의 경우, 최근 들어 고전소설의 기원과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히 개진되고 있는 한편, 고전소설 연구의 효용론, 즉 고전소설이 현대에도 필요한 이유를 일반 독자와의 소통 방법과 구체적 실천 모색에서 찾고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로까지 확장시켜 함께 다루려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각기 연구자들 나름대로 그 답을 찾고자 전통적 연구 방법을 고수하며 작품 분석과 주제 파악에 충실하려 하는가 하면, 다매체를 동원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거나 학문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인접학문과의 동거를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전소설의 대중화, 고전소설 연구의 다양화’라는 깃발이 일정한 방향 없이 자칫 바람 부는 대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불안감 또한 있다. 시도는 다양한데, 딱히 손에 잡히는 철학이나 방향성이 제대로 감지되고 있지 못한 느낌이다. 혹여 ‘고전소설의 대중화’가 자칫 시대착오적 구호 내지 자기 합리화로 전락하고 말아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다시 문학 연구의 정체성을 되짚어보게 된다. 고전소설 연구자들은 왜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로 소통하는 현대에 살면서 대다수가 읽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고전소설 연구에 매달리는 ‘시대착오적’ 삶을 살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대착오가 과연 필요한 시대착오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고전소설을 연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구운몽> 원전을 읽고, 어휘 분석을 하고, 작가가 누구이며, 이본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정짓고 작품세계를 운운하는 일이 얼마나 시대와 동떨어진 삶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인문학 연구는 즉시 돈이 될 수 없다.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환금성에 대한 조급함을 떨쳐내지 못하면 시대착오적 삶을 지탱해 나갈 근본 이유조차 상실하고 말게 된다. 논문 편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한, 그 조급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요즘처럼 업적 위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연구자들이 ‘즐거운 소비’에 빠져들기 쉽다. 소설 갈래의 본질로부터 작가의 사상과 작품의 수준을 논하며, 현대적 치환과 적용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하기보다 주변적이고 개인 취향의 주제에 안주한 채 너무 가볍게 연구를 소비하려는 것은 아닌

지 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단상들이 2010년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다가왔던 부분이었다. 여러 연구자의 내공과 혜안이 탑재된 논문 한 편에, 역저한 편에 목마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성운전』(숨겨진 우리소설 총서 1), 박이정, 2010. (박인희 주해)
 『남계연담』, 다운샘, 2010. (지남례 역주)
 『설홍전』(숨겨진 우리소설 총서 2), 박이정, 2010. (임주영 주해)
 『양소제전』(숨겨진 우리소설 총서 2), 박이정, 2010. (박인희 주해)
 『왕능전』(숨겨진 우리소설 총서 2), 박이정, 2010. (노영근 주해)
 『완월회맹연』, 다운샘, 2010. (서정수·임인선 역주)
 『장현전』(숨겨진 우리소설 총서 2), 박이정, 2010. (노영근 주해)

2. 단행본

2.1. 저서

- 간호윤, 『아름다운 우리 고소설』, 김영사, 2010.
 김석배, 『춘향전의 지평과 미학』, 박이정, 2010.
 오세정·조현우, 『고전, 대중문화를 엮는다』, 이숲, 2010.
 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 『韓國 古小説 研究』, 경인문화사, 2010.
 이원수, 『한국 고전서사문학 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2010.
 이정원, 『전을 범하다』, 웅진지식하우스, 2010.
 이태영, 『한글 고전소설과 그 필사본』, 수필과비평사, 2010.
 장효현, 『한국 고전문학의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정규복, 『구운몽 연구』(석헌 정규복 총서 1), 보고서, 2010.
 _____, 『구운몽 원전의 연구』(석헌 정규복 총서 2), 보고서, 2010.
 _____, 『한국 고전문학의 원전비평적 연구』(석헌 정규복 총서 3), 보고서, 2010.
 _____, 『한국 고소설사의 연구』(석헌 정규복 총서 4), 보고서, 2010.
 _____, 『한국문학과 중국문학』(석헌 정규복 총서 5), 보고서, 2010.
 _____, 『구운몽 자료 집성 1』(석헌 정규복 총서 6), 보고서, 2010.
 _____, 『구운몽 자료 집성 2』(석헌 정규복 총서 7), 보고서, 2010.
 _____, 『구운몽 자료 집성 3』(석헌 정규복 총서 8), 보고서, 2010.
 정길수, 『구운몽 다시 읽기』, 돌베개, 2010.

- 정병설, 『구운몽도-그림으로 읽는 <구운몽>』(키워드 한국문화 3), 문학동네, 2010.
 정하영 외 11인, 『한국 서사문학에 나타난 삶과 죽음』, 보고서, 2010.
 한국고소설학회 편, 『다시 보는 고소설사』, 보고서, 2010.

2.2. 역서

- 김현양 역, 『홍길동전·전우치전』(한국고전문학전집 7), 문학동네, 2010.
 박희병·정길수 편역, 『기인과 협객』(천년의 우리소설 4), 돌베개, 2010.
 박희병·정길수 편역, 『세상을 즐겨보며 한번 웃다』(천년의 우리소설 5), 돌베개, 2010.
 박희병·정길수 편역, 『끝나지 않은 사랑』(천년의 우리소설 4), 돌베개, 2010.
 반건국, 김수연 역, 『중국 고소설 목록학 원론』, 청계, 2010.
 신해진 역, 『용문전』(지만지 고전선집 631), 지만지출판사, 2010.
 이민희 역, 『여용국전·어득강전·조충의전』(지만지 고전선집 596), 지만지출판사, 2010.
 이상구 역, 『숙향전·숙영낭자전』(한국고전문학전집 6), 문학동네, 2010.
 _____, 『유충렬전』(지만지 고전선집 564), 지만지출판사, 2010.
 이지영 역, 『장선감의록』(한국고전문학전집 10), 문학동네, 2010.
 임치균·이민희·이지영 역, 『현대어본 낙천등운』(조선왕실의 소설 4),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0.
 임치균·이민희·이지영 교주, 『교주본 낙천등운』(조선왕실의 소설 4),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0.
 임치균·허원기 역, 『현대어본 영이록』(조선왕실의 소설 3),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임치균·허원기 교주, 『교주본 영이록』(조선왕실의 소설 3),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정충권 역, 『홍보전·홍보가·옹고집전』(한국고전문학전집 8), 문학동네, 2010.
 조수삼, 안대회 역, 『추재기이』, 한겨레출판, 2010.
 최진형 역, 『서동지전』(지만지 고전선집 554), 지만지출판사, 2010.
 탁원정·전진아·김수연 역, 『금오신화·전등신화(사랑과 죽음 꿈과 현실의 이중주)』, 미다스북스, 2010.
 『소현성록 1』(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조혜란·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2』(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3』(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4』(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정선희·허순우·최수현

역주)

- 『유씨삼대록 1』(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한길연 역주)
 『유씨삼대록 2』(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한길연 역주)
 『유씨삼대록 3』(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김지영 역주)
 『유씨삼대록 4』(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김지영·정언학·한길연 역주)
 『임씨삼대록 1』(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김지영 역주)
 『임씨삼대록 2』(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최수현 역주)
 『임씨삼대록 3』(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한길연 역주)
 『임씨삼대록 4』(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서정민 역주)
 『임씨삼대록 5』(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조혜란·정언학 역주)
 『조씨삼대록 1』(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김문희 역주)
 『조씨삼대록 2』(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김문희·조용호 역주)
 『조씨삼대록 3』(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정선희 역주)
 『조씨삼대록 4』(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전진아 역주)
 『조씨삼대록 5』(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허순우·장시광 역주)
 『현몽쌍룡기 1』(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김문희 역주)
 『현몽쌍룡기 2』(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김문희 역주)
 『현몽쌍룡기 3』(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장시광·조용호·김문희 역주)

3. 학위논문

3.1. 박사학위논문

- 김도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 방식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현영, 「변신 모티프가 나타난 고소설을 활용한 문학치료 사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
 김현주, 「가족 갈등형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0.
 류호열, 「<수영낭자전> 서사 연구-설화·소설·판소리·서사민요의 장르적 변화를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10.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창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2. 석사학위논문

- 강희순, 「고전소설의 교육적 의미 연구」, 공주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고은임,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 연구」, 서울대 국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권수희, 「영상매체를 활용한 고소설 교육방법 모색-<춘향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김정화, 「<옥갑야화>의 구조 분석을 통한 <허생전>의 교육방안 연구」, 경원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김선란, 「고전소설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윤지경전>을 중심으로」, 부산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김성민,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고전·현대문학 서사 비교교육 방안-<운영전>과 <배따라기>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김윤정, 「고전소설 <삼채정> 연구」, 국민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김자현, 「<이생규장전>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방안 연구」, 경희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김혜미, 「20세기 초 필사본 고소설 <압록강> 연구-전통적 양식 계승과 변이상을 중심으로」, 목포대 국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노윤영, 「여성영웅소설의 교육적 가치 및 교재화 연구-<방한립전>을 중심으로」, 영남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민혜경, 「고전소설에 나타난 기녀의 형상과 자의식」, 순천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성혜미, 「<민옹전>과 <열녀함양박씨전>을 통한 고전 소설 교육 방안 연구」, 강원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유은경, 「어린이용 <춘향전> 연구」, 강원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이아영, 「<서동지전> 인물 유형 연구」, 단국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장동준, 「게임 시나리오 쓰기를 활용한 고전소설 교육방안 연구-<구운몽>을 중심으로」, 동국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장하연, 「고소설에 나타난 환혼 모티프와 저승관 연구」, 단국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장 혼,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 실존인물 연구-<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조은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고전소설 교육 방안-<춘향전>을 중심으로」, 경희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정선영, 「고소설에 나타나는 진가쟁주 인물의 성격 장애 연구-<옹고집전>과 <화

- 산중봉기>를 중심으로, 목포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 최성환, 「교육과정별 고전소설교육의 변천 연구-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세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 최정미, 「<금방울전>의 독서교육 방안과 실제, 영남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 최혜리, 「고전장편소설의 공주형 인물 연구」, 서울대 국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 하동희, 「신작 고소설에 나타난 결연 양상 연구」, 아주대 국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 한경주, 「고전소설의 환상성과 초·중등 교육의 체계화-<심청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 한외영, 「고전소설 교육방안-<춘향전>에 나타나는 자기애를 중심으로」, 부산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4. 학술지 논문

- 강동엽, 「이가원 역주 <서상기>에 대하여」, 『연민학지』 13, 연민학회, 2010.
- 강문중, 「<장백전>의 설화화 과정과 그 양상」, 『장서각』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강미정, 「부부 서사 측면에서 본 <서화담전> 주변의 서사」, 『문학치료연구』 1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 강상순, 「성리학적 귀신론의 틈새와 귀신의 귀환-조선 전·중기 필기·야담류의 귀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경일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악승(惡僧)의 양상과 문학적 의미」, 『인문학연구』 80,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 고 훈, 「게임소설과 영웅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연민학지』 14, 연민학회, 2010.
- 곽정식, 「활자본 고소설의 <수호전> 수용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의」, 『한국문학논총』 55, 한국문화학회, 2010.
- _____, 「南怡將軍實記」의 창작 방법과 작자의식」, 『새국어교육』 85,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 권미숙, 「20세기 중반 책장수를 통해 본 활자본 고전소설의 유통양상-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 권순경·한재표·이상현, 「<게일 문서(Gale, James Scarth Papers)> 소재 <심청전>, <토생전> 영역본의 발굴과 의의」,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 2010.
- 권혁래, 「고전소설의 다시쓰기 출판물 연구 시론」,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 _____, 「문학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등주(登州)」, 『국어국문학』 154, 국어국문학회, 2010.
- 김경미, 「타자의 서사, 타자화의 서사,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 _____, 「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 김광옥, 「필사본과 방자본의 가치망(Value Net) 분석을 통한 상호관계 재론」, 『겨레어문학』 44, 겨레어문학회, 2010.
- 김도환, 「<화옥쌍기(花玉雙奇)>의 창작경로와 소설사적 의의」, 『우리어문연구』 36, 우리어문학회, 2010.
- 김명신, 「한글 필사본 <충렬협의전>의 번역양상 및 표기 특징」, 『중국소설논총』 32, 한국중국소설학회, 2010.
- 김민우, 「고전서사문학이 지닌 문화콘텐츠 원전으로서의 가능성-스토리텔링 개념을 중심으로」, 『전통어문연구』 22, 서울시립대, 2010.
- 김문희, 「장편기문소설의 전고(典故)와 독서 역학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_____, 「고전소설의 환상적 수사와 미감」,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2010.
- 김미령, 「관소리계 소설을 통해 본 돈에 대한 욕망-춘향전·홍부전·심청전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김석배, 「<만화본 춘향가>의 교감과 번역상의 문제」, 『어문학』 107, 한국어문학회, 2010.
- 김성철, 「<제갈량전>의 번역 양상과 소설화 방식」,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2010.
- 김수연, 「운영의 자살심리와 <운영전>의 치유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_____, 「<양축>설화의 국내유입과 <양산백전>에 나타난 소설화 양상」,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_____, 「<금오신화>의 구조미학: 상위(相違)와 소통(疏通)의 "유(遊)"」,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학회, 2010.
- 김영진,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 김용기, 「<은달전>의 인물 서사와 정서에 대한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 _____, 「주몽·온조·홍길동의 인물성격 연구-출생담과 현실적 제약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화회, 2010.
- 김재웅, 「<김태백전>의 영웅소설적 성격과 의미」,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 _____, 「<최효양문록>의 구조적 특징과 가정소설적 위상」, 『정신문화연구』 33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김정녀, 「<부장양문록>의 육망 구조 연구: 남주인공의 육망 실현 과정과 구원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6, 우리어문화회, 2010.
- _____,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의 여성의 존재 방식-<부장양문록>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8, 한민족문화학회, 2010.
- _____, 「병자호란의 책임 논쟁과 기억의 서사: 인조의 기억과 '대항기억'으로서의 <강도몽유록>」, 『한국학연구』 35,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0.
- 김정숙, 「<전등신화>와 <료제지이>의 한일(韓日)에의 전래, 그 변화와 수용의 궤적」,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_____, 「<운영전>과 <동선기> 속 악인(惡人) 탄생의 의미」, 『한문고전연구』 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김정은, 「'웅녀'의 상부살풀이 과정으로 본 <변강쇠가> 연구」, 『겨레어문학』 44, 겨레어문화회, 2010.
- 김진영, 「양마(養馬)모티프의 변환(變遷)과 문학적(文學的) 의미(意味)」, 『한국언어문학』 73, 한국언어문학회, 2010.
- _____, 「<춘향전>을 통한 고전소설 교육의 다양화 방안 모색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5, 한국언어문학회, 2010.
- _____, 「古典小說에 나타난 讖降話素의 起源 探索」,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2010.
- 김창진,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저항성」, 『세계한국어문학』,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 김창현, 「서사의 장르적 특성에 기초한 고전소설의 재창조 모형 연구-<홍길동전>과 <홍부전>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8-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 김 철, 「북학과 문인들의 중국 고전소설관에 대한 예비적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30, 한중인문학회, 2010.
- 김현영, 「<종옥전>을 활용한 문학치료 사례 연구 -'남녀서사'의 진단과 치료-」, 『겨레어문학』 44, 겨레어문화회, 2010.
- _____, 「<금방울전>을 활용한 문학치료의 실제」,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 _____, 「<박씨전>을 활용한 문학치료 사례 연구」, 『인문과학연구』 25,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 김현주, 「'악처'의 독서심리적 근거」,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김현화, 「고전소설에 나타난 꽃의 문예적 조명」,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문학회, 2010.
- 김혜련, 「제1차 조선교육령기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수록 제재 연구-<홍부전>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돈암어문화회, 2010.
- 노제운, 「고전소설 <심청전>의 애니메이션 <왕후 심청>으로의 변용에 관한 고찰」, 『한국학연구』 35,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0.
- 류준경, 「<김현감호(金現感虎)>를 통해 본 전기소설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 마이클 김, 「서양선교사 출판운동으로 본 조선후기와 일제초기의 상업출판과 언론의 위상」,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 민관동, 「<西廂記>의 국내 유입과 판본 연구」, 『중국소설논총』 31, 한국중국소설학회, 2010.
- 민영대, 「체서홍인옥보구와 <명월정>의 상관성」,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문학회, 2010.
- 박연정, 「한일 고전여성소설의 여성적 글쓰기 비교연구」, 『일본연구』 14, 고려대 일본학연구소, 2010.
- 박일용, 「<최고운전>의 창작 시기와 초기본의 특징」,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_____, 「'허생' 이야기에 설정된 서사적 단층(斷層)과 역설」, 『고전문학과 교육』 1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2010.
- 박재연, 「계명대 소장 한글필사본 번역 고소설 <서유기>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60, 중국어문학연구회, 2010.
- 박혜민, 「<백화국전> 연작의 작품세계」, 『고전과 해석』 8,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_____, 「고전문학과 꽃」, 『고전과 해석』 8,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서경희, 「가정소설에 나타난 친자 살해 연구」, 『국어국문학』 154, 국어국문학회, 2010.
- 서신혜, 「개인의 아픔으로 읽는 <방한립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_____, 「조선시대 부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몇 인식에 대한 연구」,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서유경, 「〈사씨남정기〉의 정서 읽기 교육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서인석, 「교육 텍스트로서의 <홍길동전〉」,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서정민,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의 시작(詩作) 양상과 그 소통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명행정의록〉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_____, 「〈석중옥기연록〉 연구」, 『인문학연구』 80,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서현경, 「연민 선생의 번역 및 주석본 소설에 대한 연구-〈양반전〉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13, 연민학회, 2010.

서혜은, 「〈박씨전〉의 통속화 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_____, 「이해조의 <소양정〉과 고전소설의 교섭 양상 연구」,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신상필, 「이본(異本)을 통해 본 <전등신화구해(剪燈新話句解)〉의 진과 양상과 그 함의」,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_____, 「천군류(天君類) 출현의 철학적 기반과 서사문학적 지위」,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신원선, 「한국 고전소설의 영상콘텐츠화 성공방안 연구-영화 <전우치〉와 <방자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신은경, 「고소설에 있어 ‘유통’과 ‘시운용’의 상관성에 관한 검토-〈구운몽〉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신재홍, 「김현감호와 조신의 비극적 삶과 치료적 글쓰기」, 『문학치료연구』 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_____, 「숙향·심청·홍부의 덕목들」, 『고전문학과 교육』 1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_____, 「〈유충렬전〉의 감성과 가족주의」,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안기수, 「한국영웅소설의 게임 스토리텔링 방안연구」,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회, 2010.

안민정, 「전기(傳奇)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경계 공간의 양상과 의미」, 『동방학』 19,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0.

양승민, 「국문 창작 가전체소설 <화왕본기(花王本記)〉와 그 한문번역본」, 『고소

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양승민·권진옥, 「버클리대 소장 한문소설집 백호화담에 대하여」, 『고전과 해석』 8,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안우현, 「〈장화홍련전〉-계모 허씨 다시보기」, 『전통어문연구』 22, 서울시립대학교, 2010.

엄태식, 「〈최치원〉의 창작 배경과 서사적 특징」,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엄태웅, 「회동서관의 활자본 고전소설 간행 양상」,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우림걸·유혜영, 「중국 근대 장회소설(章回小說) <영웅루(英雄淚)〉에 대한 고찰」,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유광수, 「세책본 고소설의 성립 연원과 제작 방식에 대하여 -향목동 세책본 <적성의전〉(1915)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_____, 「구활자본 <적성의전〉의 두 연원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_____, 「〈최고운전〉의 설화적 전승과 ‘최치원 설화’의 연원」, 『한국문학연구』,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2010.

유권석, 「근대 역사소설의 스토리텔링 양상 연구-〈南怡將軍實記〉를 중심으로-」, 『중앙어문학』, 중앙어문학회, 2010.

유기욱, 「서류(鼠類) 송사형 우화소설 <서오전(鼠晤傳)〉 연구」, 『국어문학』 48, 국어문학회, 2010.

유춘동, 「방각본 <수호지(水滸誌)〉의 판본과 성격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윤덕진, 「남원고사계 <춘향전〉 수록 시가의 서사양식화 과정」, 『한국시가연구』 28, 한국시가학회, 2010.

윤세순, 「17C 중국인 피난민 康世爵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와 인식태도 -〈강세작전〉과 <강군세작묘지명〉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_____, 「17세기 전기소설에 나타난 삼입시가의 존재양상과 기능-〈주생전〉·〈위경천전〉·〈운영전〉·〈상사동기〉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윤주필, 「우언과 정치-정치담론으로서의 한국 우언문학」,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_____, 「〈귀토지설〉과 <화왕계〉의 대비적 고찰」,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 윤태식, 「<조선선전(曹神仙傳)> 군(群)의 인물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국어문학』 48, 국어문학회, 2010.
- 이기대, 「<三仙記>의 인물형상과 지향가치의 실현방식」, 『한국학연구』 3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0.
- 이대형, 「<금오신화>의 번역본 고찰-연민 번역본의 특성」, 『연민학지』 13, 연민학회, 2010.
- 이민희, 「한남서림(翰南書林)의 백두용(白斗鏞) 연구-새 발굴 자료 <가상도서첩(家藏圖書帖)>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 _____, 「고전소설 교육의 실태분석과 웹(Web)을 활용한 교육방안 모색-강원도 소재 중·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학보』 31, 강원대 국어교육과, 2010.
- 이상현, 「<춘향전> 소설어의 재편과정과 번역 -게일(James Scarth Gale) <춘향전> 영역본(1917) 출현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 이수곤, 「'불륜담'의 시대적 변천 양상고찰-조선후기 문학과 현대문학의 비교」, 『비교문학』 52, 한국비교문학회, 2010.
- 이승복, 「<사씨남정기>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 이승수, 「흑선풍(黑旋風) 이규(李逵)의 인물 형상과 서사 기능-김성탄(金聖嘆) 비평의 관점에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이윤석, 「<고본춘향전> 개작의 몇 가지 문제」,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 _____, 「방각본 연구의 몇 가지 문제」,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 _____, 「연민선생의 번역 및 주석본 소설에 대한 연구-<춘향전> 주석서 고찰」, 『연민학지』 13, 연민학회, 2010.
- 이정원, 「<심청전>에서 '희생제의'로서의 재물 약속」,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이종호, 「고전소설 <둔우치전>과 영화 <전우치>의 서사구조 비교 연구」, 『온지논총』 26, 온지학회, 2010.
- 이지영, 「조성기 사유와 <창선감의록> 작자의식의 간극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 _____, 「18세기 경화사족의 소설 향유」, 『국문학연구』 21, 국문학회, 2010.
- 이지하, 「<김인향전>의 인물형상화와 작품지향성의 관계-<장화홍련전>과의 비교를 토대로」, 『동양고전연구』 38, 동양고전학회, 2010.
-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속향전 판본의 재검토」,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 이체영, 「<변강쇠가>에 나타난 원귀(冤鬼)의 함원(含怨)과 해원(解冤)」, 『중앙어문학』, 중앙어문학회, 2010.
- 이태영, 「완판 방각본 출판의 문화사」,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 이현주, 「<완월회맹연>의 역사수용 특징과 그 의미-토목지변(土木之變)과 탈문지변(奪門之變)을 중심으로-」, 『어문학』 109, 국어문학회, 2010.
- 이홍란, 「구할자본 <초한전>의 존재양상과 의미」,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회, 2010.
- 임유경, 「<김경서전(金景瑞傳)> 연구-문제적 인물의 영웅화 과정」,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 임치균,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난 청나라 지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미」, 『장서각』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_____,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회, 2010.
- 장경남, 「고등학교 교과서로 본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와 제언」,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회, 2010.
- 장순희, 「<춘향전>의 인물과 독자의 욕망 구조-완판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5, 한국문학회, 2010.
- 장예준, 「19세기 소설의 '지식' 구성의 한 양상과 '지식'의 성격-<두껍전>에 나타난 '지식' 향유양상으로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 전상욱, 「한글방각소설 신 자료 고찰」,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 _____, 「프랑스판 춘향전 Printemps Parfum의 개작양상과 후대적 변모」,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 전성운, 「상록류(喪錄類) 문헌 자료의 존재 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문학회, 2010.
- 전이정, 「고전문학 콘텐츠의 글로벌화 전략과 <홍길동전>」, 『도시인문학연구』 2-2,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2010.
-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_____,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_____, 「국문 장편 고전소설의 망자 추모에 담긴 역학과 의미-서모, 아내, 아우 제문 분석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5, 한국비평문학회, 2010.
- 정인혁, 「주(主)-노(奴) 상호이해형 추노(推奴) 이야기 연구」,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정출현, 「탄금대 전투에 대한 기억과 두 편의 <달천몽유록>」,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_____, 「전근대 동아시아 敍事學의 지평과 한국고전소설의 위상」, 『동양한문학회』 31, 동양한문학회, 2010.
- 정환국, 「전근대 동아시아와 전란, 그리고 변경인」, 『민족문학사연구』 44, 민족문학사학회, 2010.
- _____, 「송사소설의 전통과 <신단공안(神丹公案)>」,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홍경래 난을 바라보는 시선」, 『한국어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 조광국, 「<하진양문록>: 여성중심의 효 담론」, 『어문연구』 14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 _____, 「<벽허담판제언록>에 구현된 상층여성의 애육담론」,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 _____, 「<유이양문록>에 구현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양상과 의미」, 『국문학연구』 22, 국문학회, 2010.
- 조도현, 「<전우치(田禹治)>서사의 현대적 변이와 유통방식 -영화 <전우치>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문학회, 2010.
- _____, 「사회 변동의 맥락에서 본 <다모전(茶母傳)>의 창작 배경과 작가 의식」, 『인문학연구』 80,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 _____, 「<우경천전>에 나타난 전환기 사대부의 현실대응 방식」,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10.
- 조은상, 「콩쥐팥쥐에 대한 반응을 통해 본 부모 가르기 서사와 우울성향 자기서사」, 『문학치료연구』 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 조재현, 「<양소저전> 연구-작품 교섭 양상과 주인공의 여성영웅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 _____, 「고전 서사에 나타나는 ‘불가살이’ 연구」, 『어문연구』 38-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조혜란, 「가문과 개인 사이-<임씨삼대록>의 임관홍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_____, 「취향의 부상-<임씨삼대록>의 반복 서술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학회, 2010.
- 주형예, 「19세기 한글통속소설의 서사문법과 독서경험-여성이야기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진재교, 「월경(越境)과 서사(敍事)-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기억(記憶)-<최척전(崔陟傳)>독법의 한 사례」, 『한국한문학회』 46, 한국한문학회, 2010.
- 차충환, 「신작 구소설 <이두충렬록>의 형성과정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국제어문』 50, 국제어문학회, 2010.
- _____, 「<장태문전>의 성격과 필사본 고소설의 유통」, 『어문연구』 38-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 차충환·김진영, 「고소설 <보심록> 계열의 형성과정과 그 사적 의미」, 『동양학』 4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 _____, 「<태아선적강록>과 <유황후전>의 비교연구」, 『어문연구』 38-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 최광석, 「<토끼전> 토끼포획 계열 연구」,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_____, 「<홍길동전>의 교과서 수용 양상과 목표 학습 활동의 재구성-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2010.
- 최귀묵, 「전기 <최치원> 다시 읽기」,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량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학회, 2010.
- _____, 「<현씨양옹쟁린기>에 나타난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화적 재배치-현경문·주소지 부부 관련 서사분석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_____, 「고소설에 나타난 ‘부부 불화’의 통계 분석을 통해 본 ‘부부 갈등’과 ‘결혼 생활’의 상상 구조」, 『동방학지』 14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0.
- _____, 「1950년대 대학의 국문학 강독 강좌와 학회지를 통해 본 국어국문학 고전 연구방법론의 형성과 확산-고전텍스트 연구로서의 ‘이본’ 연구와 ‘정진’ 형성의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최길용, 「고소설에 나타나는 앵혈화소의 서사 실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최수현,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망모(亡母) 추모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최애영, 「심의(沈義)의 <대관재기몽(大觀齋記夢)>에 대한 현대적 읽기의 한 시도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우리어문연구』 37, 우리어문학회, 2010.
- 최용철, 「朝鮮王室에서의 中國小說 수용과 반향」, 『한자한문연구』 6, 고려대학교 부설 한자한문연구소, 2010.

- 최윤희, 「〈손춘사영이록〉의 도교적 면모와 의미」,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2010.
- _____, 「〈손춘사영이록〉의 이본 특징과 존재 의미」, 『한국학연구』 3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0.
- 최진형, 「고전 소설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문학 교과서 수록 〈홍부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3,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 최천집, 「〈천군연의〉의 형성 기반과 작품 성격」, 『어문학』 110, 한국어문학회, 2010.
- 최호석, 「영창서관의 고전소설 출판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37, 우리어문학회, 2010.
- _____, 「안성관과 경관의 거리」,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 _____, 「신문관 간행 〈육진소설〉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2010.
- 코바코바 울리아나, 「〈벽허담관계언록〉 이본 연구-완질본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 하성란, 「놀부 박 사설의 성격과 화폐경제인식」, 『한국어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 _____, 「〈포의교집〉의 삽입시 연구」, 『한국문학연구』,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2010.
- 한길연, 「대하소설의 환상성의 특징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 _____, 「〈유씨삼대록〉의 예법(禮法)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34,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0.
- 한의승, 「19세기 漢文小說에 나타난 ‘忠·孝·烈’의 구현양상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 허경진, 「연민선생 주석본 〈구운몽〉에 대하여」, 『동양학』 4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0.
- 허순우, 「국문 번역본 〈설공찬전〉에 반영된 사생관(死生觀) 고찰」,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허원기, 「〈손춘사 영이록〉의 도교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_____, 「새 자료 칠미인연유기(七美人宴遊記)의 가치와 의미」, 『장서각』 2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허정주, 「〈포의교집〉의 ‘근대성’에 관하여」, 『건지인문학』 3,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2010.

- 홍현성, 「태원지(太原誌) 시공간 구성의 성격과 의미」,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황혜진, 「고전소설 소재 인물의 역사적 삶에 대한 연구 -〈운영전〉의 안평대군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_____, 「〈구운몽〉의 정서 형성 방식에 대한 교육적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